

■ 르포 - 폭우에 밤잠 설치는 영산강 홍수통제소



1일 광주·전남 전역에 호우주의보 속 장대비가 쏟아지자 '영산강 홍수통제소' 직원들이 상황실 내 대형 모니터를 통해 영산강·섬진강 등 주요 하천의 수위를 긴급 점검하고 있다. /나주=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영산·섬진강 수위 점점 초긴장 비구름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

광주·전남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1일 새벽 나주시 송촌동 '영산강 홍수통제소'(소장 최동식), 광주·전남 전역에 천동번개를 동반한 70~11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우주의보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상황실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평소 2명이 근무하던 상황실에는 야간 당직팀 5명 모두가 나와 비상근무 1단계인 '준비체제'에 돌입했다. 이들은 영산강·섬진강·만경강·동진강·탐진강 등 전남·북 5개 강의 무인관측소 117곳에서 보내주는 수위(水位) 관련 자료를 분석해 홍수 예보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영산강 8m ▲섬진강 7m. 이날 영산강의 수위는 2.4m로 전날보다 1.8m나 올라갔다. 영산강의 경우 하루 340mm의 집중호우까지 견딜 수 있다.

각종 데이터 분석 촉각

'준비체제' 단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조서관리과 예보요원. 이날 근무자인 정천리(48)씨가 영산강·섬진강 등 주요 지점 11곳에 설치된 CCTV에서 보내온 영상을 모니터하는가 하면 무인자동관측소에서 10분 단위로 보내오는 하천 수위 데이터(data)를 살펴보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비슷한 시간, 상황실 내 관측장비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전기통신과 전성갑(51) 과장 역시 117곳의 무인관측장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통제소가 관할하는 하천이 무려 661개에 달하고 무인관측장비나 CCTV가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자료에 의존하는 만큼 관측장비의 정상 작동은 홍수예보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관할 하천 무려 661개

전 과장은 "어름은 태풍과 장마, 집중호우 등 예측할 수 없는 날씨 때문에 1년 중 가장 바쁜 계절이다"며 "전 직원 모두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평소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직팀 5명 비상근무

전 직원이 29명인 통제소에서는 홍수주의보 발생시 직원의 3분의 2가 당직 근무에 들어가는 '경계체제', 홍수발생시 전직원이 출근하는 '비상체제' 등 3단계 비상근무 체제를 갖추고 있다. 홍수주의보 발령 수위는 ▲영산강 나주(본류) 7m ▲섬진강 구례 6m이며, 경보

12번째 예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씨가 홍수주의보를 발령하는 것은 1년에 3~4차례.

정씨는 "2004년 8월 태풍 '매기'가 왔을 때는 시간당 60mm의 비가 내려 영산강 유역에 홍수경보가 발령되는 바람에 이를 밤을 꼬박 썼다"며 "태풍이 물러오는 8~9월이면 전 직원이 비상체제 돌입해 비구름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1년에 개소한 영산강 홍수통제소는 지난 2005년 섬진강 홍수통제소와 통합되면서 전남·북의 유일한 홍수통제소가 됐다. 오는 2008년 말에는 광주시 서구 농성동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11개월 아이 엄마가 내던져 숨져

광주 서부경찰, 비정의 20대 영장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집어던져 숨지게 한 비정의 어머니가 병원 측의 신고로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은 1일 자신의 아들(11개월)을 던져 숨지게 한 주모(여·23·해남군)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달 30일 밤 9시에 광주시 서구 쌍촌동 언니의 집에서 아들이 '울면서 보챌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다.

주씨의 아들은 이날 밤 자정께 조 선대 병원에서 치료 중 숨졌다.

주씨는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의료진에게 말했다. '폭행에 의한 상처'로 의심한 응급실 당직의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발령이 들었다.

경찰은 주씨가 평소에도 행동발달이 느리다는 이유로 아들을 자주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가족들을 상대로 상습 폭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나원침 (7250) 김장두



뛰는 주수도 위에 나는 사기고수 브로커 3명 로비자금 20억 뜯어

제이유 그룹의 주수도 회장조 차 브로커 3명에게 60억원의 로비자금 중 20억원 정도를 뜯긴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에 따르면 주 회장 측으로부터 제이유의 불법영업 실태를 다루기로 한 TV방송 관계자에게 부탁해 방영 계획을 무산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5억원을 받은 브로커 황모(50)씨가 구속됐다.

주 회장은 또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면서도 명문 법대 출신의 변호사 지명인사로 거짓 행세해온

한 공무원시험학원 강사 이모(55)씨에게도 8억원을 뜯겼다.

주 회장은 이씨를 2001년 10월부터 조카 회사의 '사외이사'로 등재시켜 자신의 석방로비 등을 위해 사용하라며 현금카드까지 만들어줘 6억3천만원을 쓰도록 했으나 정작 이씨는 로비를 위해 '원 환권' 쓰지 않고 4억원을 정기에금에 넣고 나머지는 자녀 유학 및 부인 사업자금 등에 썼다.

검찰은 주 회장의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5억원의 돈을 뜯어낸 다른 사기꾼도 찾고 있다.

/연합뉴스

김훈 중위 살해범 지목 보도 대법, 시사저널에 손해 판결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김훈 중위 살해범으로 몰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당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감도 중사와 가족들이 시사저널 전 발행사인 예음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천7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기사에서 원고 김씨의 실명을 쓰지 않고 '김아무개 중사'라고 지칭하고 있으나 그것이 김씨를 지목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김훈 중위는 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지하벙커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당시 김씨가 야간 경계근무중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병사들과 고기를 먹는 등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자 시사저널은 김씨의 북한 접촉과 김훈 중위의 사망이 연관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연합뉴스

이혼 문제 말다툼 30대 부인 흉기 찌르고 도주

지난달 30일 밤 10시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J아파트에서 강모(39)씨가 부인 나모(36)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부인은 경찰에서 "친정집에서 남편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는데, 갑자기 흉기를 들더니 우측 어깨를 한 차례 찔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술에 취한 강씨가 "이혼하자"는 부인의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달아난 강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종행 기자 gilee@kwangju.co.kr

여수앞바다 바지선 전복 경유 500ℓ 유출 피해

1일 오후 3시20분께 여수시 남면 금호도와 안도 사이 해상에서 안도선적 바지선 454t급 '백석호'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경유 500ℓ가 유출됐다. 바지선에 타고 있던 선원은 바지선을 끌고 가던 경북 포항선적 예인선 50t급 '하주천 200호'(선장 배모·61)에

의해 구조됐다.

해경은 "예인선과 바지선을 연결한 줄을 풀던 중 사고가 났다"는 선장의 말에 따라 묶여있던 줄이 갑자기 풀리면서 파도(1~2m)에 흔들리던 바지선이 균형을 잃고 전복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무안 농수로서 감전사

지난달 30일 오후 3시50분께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농수로서서 최모(50·망운면 송현리)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 김모씨(37)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농수로 공사를 하던 최씨가 농업용 전기 배선반에 전기 절단기를 연결시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고인 물에 빠지면서 감전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노숙자 도로서 잠자다 후에 깔려

노숙자가 도로에서 잠을 자던 한 노숙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차한 차량 밑에 깔려 119가 출동.

○광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A아파트 옆 길에서 신원 미상의 노숙자(50대 추정)가 카니발 차량 바퀴에 상의가 낀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것을 행인 김모(36)씨가 발견, 신고했다는 것.

○긴급출동한 119 대원들은 카니발 차주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않자 에어백을 이용해 차량을 들어올린 다음 노숙자를 구출.

○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용 옷을 덮고 있던 노숙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지 않았던 것 같다"며 "자칫 큰 화를 당할 뻔했는데 다행"이라고 안도.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전도지의 중심특권을 우리는 3,813 최대단지! 888만 498평 최대 단지! 수원신도시 파오리 분양문의 082-367-9000

